

나자신부터 안전기본의 생활화

천년대의 마지막 해를 영원히 뒤로 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산업안전분야도 과거를

되돌아보며 정리하고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새 천년의 원대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여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 시행된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발달의 초기에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설비, 재료, 기술이 도입되었고 생산을 위한 기술의 도입에만 심혈을 기울였으며, 산업안전·보건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시기였다. 우리나라의 산업발달은 세계에서 그 역사를 찾아 볼 수 없을 경이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 뒷면에는 산업발전의 주역으로 종사해 온 근로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는 불명예스러운 산재다발국이란 오명을 갖게 되었다.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룩된 후에도 산업의 질적인 변화와 근로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재해의 발생건수와 중상해사고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산재비용이 급등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비로소 안전의 문제가 표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안전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독립법으로 법률 제 3532호로 제정 공포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실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주의 인식 부족과 근로자의 참여 부족으로 법에 의한 강제적 관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근년에 이르러야 비로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안전관리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는 단계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경제적 부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영향도 발생하겠지만 특히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는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아직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산재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이제 이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재해없는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뒤따라야겠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시행이후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64년에서 1997년까지 사망자수는 49,204명, 부상자는 2,761,420명, 직업병자 35,311명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의 손실은 6.25동란의 인명피해와 비교하면 그동안 2번의 전쟁을 치른 결과와 비슷하다.

정부는 사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여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산업재해의 부분이야말로 새 천년에는 인간존중의 시대를 위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산업재해를 영원히 추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화 초기의 사고는 제쳐두고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꿈꾸던 90년대에 들어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했던 대형 사고를 보면, 광주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TDI공장의 독성가스 누출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고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고들이 발생하였다.

왜 이런 사고가 연이어 일어날까? 여러 가지 복합원인들이 있지만 안전공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안전관리의 측면으로 요인을 축소해서 지적한다면 안전에 대한 기본이 바르게 정




한국산업안전학회
회장 목연수

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기본이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면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각종 규정이나 법규를 지키는 근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바쁘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과 행동이 산업사회를 비롯한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지키기를 강요하는 잘못된 풍토와 모범을 보여주며 실천하는 안전이 아니라 말로 하는 안전이 사회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을 거울삼아 진정한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모두는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의 기초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고를 야기시켜왔다. 안전의 기초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키기 운동」을 생활화하여, 정해진 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제반 안전규정이나 절차 및관련 법규들이 지킬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먼저 지킬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이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모두가 반드시 정해진 것을 지키는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로 가정안전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H.W.Heinrich가 재해 발생 도미노이론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산업재해 발생의 1단계(유전적 및 사회적 환경)와 2단계(개인의 결함)는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활동을 실행하지만 그것은 제3단계의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안전확보의 가장 근본 단계인 제 1단계와 2단계를 소홀히 하고서는 제3단계를 지켜 나가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성세대는 제3단계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천년의 주인이 될 우리들의 자녀들과 소년, 소녀들에게는 2단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여 잘못된 개인의 결함 즉,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셋째로 앗차사고(Near Miss, Near Accident)를 잘 관리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건설해가도록 하여야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다치는 상해사고만을 중시하여 안전관리를 해왔다고 생각된다. H.W.Heinrich의 1:29:300의 이론이나 Bird의 1:10:30:600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상해사고가 발생하기까지에는 다칠 뻔한 무상해사고 즉, 앗차사고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앗차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진정한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 그밖에도, 새 천년에 안전한 직장, 일할 맞는 직장, 신바람 나는 직장을 위해 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우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나자신부터 안전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습관을 기르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앗차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없는 산업사회를 건설해나가도록 하여야겠다. 

우리모두는 변해야 한다.

가정안전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앗차사고(Near Miss, Near Accident)를 잘 관리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건설해가도록 하여야한다.